

보라! 왕이 나귀새끼를 타셨다 [요 12:12~15]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가리켜, ‘**종려주일**’(palm sunday)이라고 부른다. 이 날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며,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의 절정에 해당된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을 외쳤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겔옷을 깔아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했다(13절). 이것은 한 나라의 백성이 자기들의 왕에게 돌리는 최고의 예우였다. 실제로 당시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했다. 예수님 자신도 죽으시기 일주일 앞두고는, 자기정체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왕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왕이신가?

1. 승리의 왕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승리의 입성이 아니라, 죽음의 입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입성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승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으나,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치셨다. **(골 2: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부터 로마의 악한 권력까지 결국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쥐고 흔들던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한다. 중요한 것은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를 누린다는 것이다. 삶의 매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마귀와 담대히 싸워 물리치자.

2. 겸손의 왕

왜 예수님은 작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어떤 무력이나 권력을 사용해서 승리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으며, 죄인들을 섬기셨으며, 그들을 위해 죽는데 까지 낮아지심으로 승리를 얻으셨다. 이렇게 겸손은 자기부인, 자기포기, 자기희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겸손으로 세워지는 나라다(약 4:6). 이렇게 예수님의 삶 전체가 겸손이었듯이, 우리 역시 겸손으로 옷 입고 사명을 감당하자.

3. 평화의 왕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 **(14-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군마를 타고 세상을 짓밟고 호령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의 방식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길 포기하셨다. 군마는 그 발굽에 짓밟힐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지만, 나귀는 작아서 어린 아이들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 세상은 미움과 시기와 분쟁을 일삼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나귀새끼를 타셨던 예수님은 ‘**승리**’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다! 종려주일을 맞아, 당시 우리들이 겔옷을 깔아서 예수님께 최고의 예를 표했듯이, 우리도 마음의 자리를 펴서 예수님을 높이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자. 무엇보다도 그들이 호산나 찬송을 불렀듯이, 이번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고 바라보자.

보라! 왕이 나귀새끼를 타셨다 (요 12:12~15)

1. 마음 열기 - 상반기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는?
2. 경배와 찬양 - 찬송가 150장(갈보리산 위에)

녹슨 세 개의 못

1. 그때 그 무리들 이 예수 님 못 박았 네
2. 주여 저 들의 죄 를 용서 하 주 소 서
3. 비웃 는 그 무리 들 주 의 웃 버 긴 후 에
4. 주 여 나 의 영 혼 을 받아 주 시 움 소 서

녹 주 스 세 개 의 그 못 으 로 -
주 님 님 눈 을 로 이 기 도 했 - 네
그 때 구 원 을 찔 러 - 네
그 때 구 원 을 찔 러 - 네

망 치 소 리 내 맘 을 울 리 면 서 들 렸 네
귀 중 한 그 보 배 피 나 를 위 해 흘 렸 네
마 지 막 피 한 방 울 나 를 위 해 흘 렸 네

그 피 로 내 죄 씻 었 - 네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본문과 말씀요약을 읽으세요.
 - (1) 성경본문과 설교요약을 읽고, 특별하게 다가온 구절이나 은혜 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2)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오히려 승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골 2:5) 또한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서로 고백해 봅시다.
 - (3)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14-15절) 이런 삶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 목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서로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누고, 실천합니다.
4. 사역나누기
 - (1) <상반기 특별새벽기도회>에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합니다.
 - (2)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